

# 지오토와 ‘문화현상’

서양미술사에서 지오토는 자신의 캐릭터를 처음 세상에 드러낸 화가이다. 좀 과장하면 지오토 이전에는 신의 존재를 표현하기 위한 매개체로서의 회화만 존재했다. 신의 시선이 중요했지 인간의 시선은 하위 개념이었다. 비잔틴 미술의 끝자락은 신의 존재를 부각시키고 문맹의 신자들의 신심고취의 목적이 우선이었다. 따라서 그 작품을 제작한 화가의 존재는 알 필요도 없었고 그 존재의 가치도 별로 인정되지 않았다. 우리 문화의 정점을 이루었던 고려청자를 빚은 천재적 도공의 이름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과 비슷한 의미이다.

지오토 이전에도 알려진 화가는 간혹 있었지만 그의 명성만큼은 온 세상이 특별히 알고 있었다. 서양미술사에서 지오토의 위치는 각별하다. 그의 작품을 통해 미술사의 흐름이 명확해진다. 이러한 맥락을 이해할 때 우리는 신앙과 신심을 고양시킬 수 있는 범위가 풍부해진다. 이콘화나 르네상스 미술과 견주어 지오토의 작품이 우수하다는 이야기는 결코 아니다. 지역별 미술환경의 차이 혹은 교류의 흐름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다. 인간이 인식하는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문화현상’은 변화한다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다. 시대별로 달리 나타나는 가톨릭 미술에서 볼 수 있는 성화의 개념을 이해할 때 우리의 신앙심에는 더욱 다채롭고 풍요한 신심을 불러 일으키는 상승효과를 가져온다. 그러므로 성화의 시대적 변천을 살펴봄으로써 더욱 확장된 새로운 믿음의 경지에 다달을 수 있을 것이다.

지오토의 작품을 세부적으로 들여다 보면 표현의 디테일이 보다 감성적임을 알 수 있다. 전대의 그림(도판1)과 지오토의 디테일(도판2)을 비교하면 그 차이를 확연히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를 미술사의 흐름을 알고 익히지 않으면 그 표현의 풍요함을 이해하기 힘들다.

문화의 생성은 지역적이나 시대에 따라 다 다르게 나타난다. 시간차가 많이 나거나 그 형태가 너무나 다양하다. 그렇다고 그러한 문화의 특성을

우열과 경중으로 가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어떤 문화가 다른 문화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우열을 가리는 바로미터가 아니다. 문화란 상호간 교류에 의해 거대한 물줄기처럼 함께 흘러가기 때문이다. 고대미술에서 비잔틴 미술까지 무명의 작가들은 대상을 주관화하지 못했다. 그 시대에는 결코 대상을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 없는 환경적 제약이 있었을 뿐이다. 그 제약이 타파될 때 곧 새로운 문화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문화현상’을 억누르거나 배제한다면 인간 존재의 가치와 존엄을 훼손하는 일이란 것은 불문가지다. 이러한 문화현상의 중요성을 이해 못하는 군중이나 한 나라의 리더가 있다면 그 국가는 이미 멸망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자신의 문화를 잃은 민족이 세상에 어디 한둘 뿐이겠는가! 일제에 대해 대한독립운동으로 일생을 바친 백범 김구는 이러한 문화의 중요성을 진작에 알고 있었다. 일제 강점기 일본인들에 의한 조선문화 말살정책이 얼마나 가혹했으며 악질적인지 새삼 말해 무슨 소용이 있으랴!

다른 예를 든다면 원나라에 의해 침탈당한 고려에서 일찌감치 알아서 원의 복식제도를 받아들인 고려 왕가에게 당시 원나라 황제 쿠빌라이 칸이 누가 그렇게 빨리 몽골의 습속을 따라하라고 했느냐며 놀랐다는 역사의 자료가 남아있다. 부끄러운 일이다. 일본과의 화해는 당연히 현세대의 책무이고 인근 국가와의 문화 교류의 중요성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같다. 그런데 주체적이지 못하고 약육강식의 정치적 압력에 굴종해서 타국을 떠받드는 정치적 행위는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독자적 한국문화의 경이로운 모습을 폄훼하는 일이다. 넓은 의미로 본다면 인류의 ‘문화현상’ 안에는 당연히 국가간 정치행위도 포함된다.

자연의 일부인 인간은 본능적으로 알지못할 위협에 처할 때 가장 먼저 소리에 반응한다. 그리고나서 시각을 이용해 위험성을 직접 살핀다. 소리의 영역은 그만큼 우리의 안전한 삶을 영위하는데 중요하다. 그래서 앞서 얘기한 음악과 미술간의 우위성 논쟁은 사실상 부질없다. 비교우위의 대상이 아닐 뿐더러 상호보완 관계이기 때문이다. 하물며 현대 미술과 현대음악은 장르를 초월해 짬뽕(?)이 된지 이미 한 세기가 지나 버렸다.

아무튼 ‘문화현상’으로서 지오토의 이 성화작품은 서양미술사의 독보적 위치를 차지하며 특히 가톨릭 미술사에 변곡점이라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

글/김용배 안드레아



▲ 도판1  
지오토 이전의 다분히 설명적인 작품의 예



▲도판2- 보다 감성적인 표현을 중시한 지오토의 본도네 작품  
‘그리스도의 죽음을 애도함’ 프레스코, 200x185cm, 스크로베니 성당, 파도바, 1305)

연중  
제 2 주일  
2024년  
01월 14일

### 미사 시간 안내

평 일 (영어미사)  
화요일-7:00 PM  
수 ~금-9:00 AM  
주일(한국어/영어 미사)  
토(특전/영어)-4:00PM  
일요일(영어)-9:00AM  
(한국어)-11:30AM  
고해성사-11:10AM

### 사무실 안내

주소: 122 High Street  
South Bound Brook,  
NJ 088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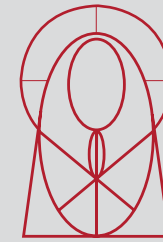
#Tel : 732-356-1037  
#Email: office@edisonkcc.org  
근무시간: 화~금요일  
(9AM~2PM)

### 에디슨한인천주교회

주임신부  
이용범 사도요한

본당부제  
윤석로 이냐시오

평협회장  
채희백 바오로



에디슨한인천주교회  
OUR LADY OF MERCY PARISH



〈하느님의 어린양을 보라〉 디에릭 보우츠, 1462-64, 독일

### 〈 이번 주 전례안내 〉

# 제 1독서 사무엘기 상권3,3ㄴ-10.19  
# 화답송 시편 40(39),2ㄱㄴ과 4ㄱㄴ.7-8ㄱㄴ.8ㄷ-9.10(© 8ㄴ과 9ㄱ)



# 제 2독서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6,13ㄷ-15ㄱ.17-20  
# 복음 환호송 요한 1,41.17 참조  
○ 우리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만났네. 은총과 진리가 그분에게서 왔네.  
# 복음 요한 복음1,35-42



**새로 오신 분, 방문해 주신분, 오랜만에 오신 교우들 환영합니다!**

- 미사지향 (연미사)**
- 오경선(원선시오) - 가족, 박재영(요아킴)가족, 반석회, Carol & Cliff Rockwell
  - 선점환(마리아) - 가족
  - 김진철(요한) - 가족
  - 김명자(헬레나) - 가족
  - 김상기(요셉) - 가족
  - 이동현(요셉) - 이순재(마리아) 가족
  - Paul Mahony - 황 비비안나
  - 길정숙(루시아) - 썸머셋 구역

- 미사지향 (생미사)**
- 이용범(사도요한) 신부님 - 메타천 구역
  - 윤석로(이나시오) 부제님, 윤규옥(안젤라) - 허 아나스타시아
  - 염은미(클라라) - 가족
  - 오애희(우리안나) - 박재영(요아킴) 가족
  - 오현주(요한), 오옥자(테레사) - 박재영(요아킴) 가족
  - 윤 날리 - 가족
  - 백인혁(그레고리오) - 가족
  - 이종권(베드로) - 변모 공동체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 1/7 주일 헌금 (119명) .....	\$939
• 2차헌금 (Together in Charity) .....	\$292
• 교무금.....	\$820
최영옥(1) 이재서(1-6) 김영필(1-2) 박락준(1)	
• 감사헌금.....	\$1,060
손흥구(\$60) 박락준(\$1,000)	

- 환우들의 빠른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하건철(안토니오) 오용덕(헬리코) 염은미(클라라)
  - 하준석(마태오) 곽 올리안나 방진숙(테레사)
  - 송희수(글라라)

-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우편) 으로 배우는 신학과정**
- 지원자격: 만 18세 이상 가톨릭 교회 평신도
  - 접수마감: 2024년 2월 16일
  - 문의: 사무실

- 바오로딸 성경학교 학생모집**
- 과정: 입문/중급/성바오로 신학영성 중 선택
  - 방법: 우편과 동영상 강의 성경 공부
  - 접수마감: 2024년 1월 31일
  - 문의: 사무실

- 제 66차 기초 성령 세미나**
- 일시: 2024년 3월 14일(목) 오후 5시 - 3월 17일(일) 오후 5시 30분, (3박 4일)
  - 장소: 뉴튼 분도 수도원 (297 US-206, Newton, NJ 07860)
  - 강사: 김정경 살바노 신부(미동북부 성령쇄신 봉사회 지도신부), 미 동북부 사제단
  - 신청 마감: 2024년 2월 29일(수)
  - 참가비: \$390/1인 (숙식제공)
  - 신청문의: 미동북부 성령쇄신 봉사자 협의회 kaccrs.ne@gmail.com

- 2차 헌금**
- 1월 14일 : 유틸리티
  - 1월 21일 : Foundation for Catholic Education (교구내 초등-고등학교 재학중인 학생들 학비 지원)

- 2024년 1월 주일 미사 일정 안내**
- 1월 14일(주일) 오전 10시 손대혁 루치오 신부님 (한영 통합)
  - 1월 21일(주일) 오전 10시 손대혁 루치오 신부님 (한영 통합)
  - 1월 28일(주일) 한국어 미사 오후 3시 장재명 파트리치오 신부님

- 설날 합동 위령미사 신청**
- 설날 합동 위령미사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 바랍니다.

- 친교 봉사 일정**
- 1/21 울드브릿지 • 2/18 이스트브런스윅 • 3/17 피스브릿지

- 1월 빵과 포도주 봉헌 봉사자**
- 1/14 이숙희, 최윤규 • 1/21 심윤조, 박화성
  - 1/28 전광수, 전옥주

- 2024년 성당 달력 배부**
- 각 구역장님들을 통해 2024년 달력을 배부하오니 교우분들께서는 한 가정 당 한 부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 구역에 소속되지 않으신 분들은 사무장에게 받아가시면 됩니다.

- 성당 교우 주소록 갱신**
- 주소록 작성을 완료하신 후 각 구역장님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꾸리아 월례 회의**
- 일시 및 장소 : 1월 14일(주일) 미사 후 친교실 회의실

- 기획분과 회의**
- 일시 및 장소 : 1월 21일(주일) 미사 후 친교실 회의실

- 전례분과 월례회의**
- 일시 및 장소 : 1월 21일(주일) 미사 후 친교실
  - 대상 : 소분과 단체장 (독서단, 제대회, 성가단, 복사단)

- 피스브릿지 구역회**
- 일시 및 장소 : 1월 21일(주일) 미사 후 친교실

- 성모회 주관 테네시 유기농장 농산물 판매**
- 주문 마감 : 1월 14일(주일) 까지
  - 특판 무말랭이 \$25

- 사무장 모집 공고 (문의 : 성당 사무실)**
- 응모자격: (1) 본당 신자, (2) 컴퓨터 활용이 가능하신 분, (3) 생활영어 가능하신 분

- 2023년 세금 보고용 교무금 납부 증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바랍니다.**

- 모든 친교 후 청소 철저**
1. 모든 쓰레기통은 비우고 새 비닐백으로 쥘워주세요.
  2. 재활용통에 쓰레기를 버리지 마세요.
  3. 재활용 통에는 병, 캔, 깨끗한 종이 만 넣어주세요.
  4. 바닥 청소
  5. 마지막 퇴소자는 소등 및 문 단속 확인 바랍니다.

**제1독서: 사무엘기 상권3,3L-10.19**

그 무렵 사무엘이 하느님의 궤가 있는 주님의 성전에서 자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다. 그가 “예.” 하고 대답하고는, 엘리에게 달려가서 “저를 부르셨지요?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다. 돌아가 자라.” 하였다. 그래서 사무엘은 돌아와 자리에 누웠다. 주님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자,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저를 부르셨지요?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내 아들이야,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다. 돌아가 자라.” 하였다. 사무엘은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드러난 적이 없었던 것이다. 주님께서 세 번째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자, 그는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저를 부르셨지요?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제야 엘리는 주님께서 그 아이를 부르고 계시는 줄 알아차리고, 사무엘에게 일었다. “가서 자라. 누군가 다시 너를 부르거든, ‘주님,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사무엘은 돌아와 잠자리에 누웠다. 주님께서 찾아와 서시어, 아까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은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무엘이 자라는 동안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어, 그가 한 말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6,13D-15G,17-20**

형제 여러분, 몸은 불륜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몸을 위해 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하느님께서 주님을 다시 일으키셨으니, 우리도 당신의 힘으로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모릅니까? 주님과 결합하는 이는 그분과 한 영이 됩니다. 불륜을 멀리하십시오. 사람이 짓는 다른 모든 죄는 몸 밖에서 이루어지지만, 불륜을 저지르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의 성전임을 모릅니까? 그 성령을 여러분이 하느님에게서 받았고, 또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님을 모릅니까? 하느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몸으로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요한 복음1,35-42**

그때에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눈여겨보며 말하였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양이시다.” 그 두 제자는 요한이 말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예수님께서 돌아서시어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무엇을 찾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라뻬,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라뻬’는 번역하면 ‘스승님’이라는 말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보아라.” 하시니, 그들이 함께 가 예수님께서 묵으시는 곳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묵었다. 때는 오후 네 시쯤이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였다. 그는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소.” 하고 말하였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이다. 그가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가자, 예수님께서 시몬을 눈여겨보며 이르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앞으로 너는 케파라고 불릴 것이다.” ‘케파’는 ‘베드로’라고 번역되는 말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National Eucharistic Revival**

2023 National Eucharistic Revival 이 지난 성체 성혈 대축일에 시작되었습니다. 이 운동의 목표는 성체성사를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관계를 일깨움으로써 교회를 “새롭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3년 동안의 계획으로, 우리 가톨릭 신자들에게 영감을 주고 교육하며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Pew Research Center에 따르면, 가톨릭 신자 중에서도 실제로 그리스도의 성체성사에 대한 진리적 존재를 믿는 사람은 31%에 불과합니다.

이 3년의 여정을 통해 우리는 믿음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우리 믿음의 근원이자 정점인 주님께서 현존하시는 성체성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에는 교구 부흥의 해, 2024년 National Eucharistic Congress (인디애나폴리스, 인디애나, 7월 17일-20일)와 국가 선교의 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3년에는 우리 Our Lady of Mercy성당에서는 매 주 미사 중 공지사향 시간에 교육적인 "신앙상식" 시리즈를 발표할 계획이며, 이를 주보에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일학교와 유스그룹 학생들이 성체성사를 통해 예수님의 존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젝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외에도 강연 시리즈와 모든 교구 신자들을 위한 Night of Mercy행사 계획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National Eucharistic Revival 성체 기도문**

**오 성스러운 만찬**

오 거룩한 성체여,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계시는 곳,  
그리스도 수난의 기억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은혜로 가득 채우시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저희가 얻게 하소서.

**O Sacrum Convivium**

O sacred banquet,  
in which Christ is received,  
the memory of his Passion is renewed,  
the mind is filled with grace,  
and a pledge of future glory is given to us.